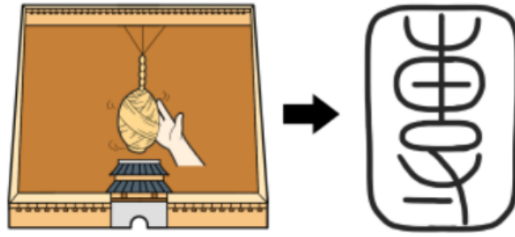


5(2)  
-  
21

회의문자 ①



團

둥글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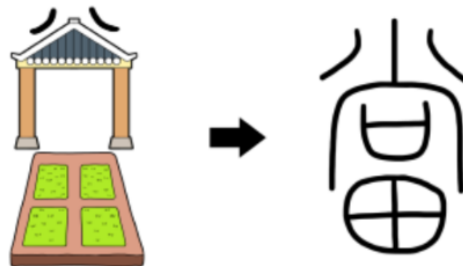
團자는 '둥글다'나 '모이다', '집단'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團자는 口(에운담 위)자와 專(오로지 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專자는 실을 감는 방추(紡錘)를 손으로 돌리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오로지'나 '둥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방추는 실을 둥글게 감던 것이기 때문에 '둥글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둥글다'라는 뜻을 가진 專자에 口자가 결합한 團자는 테두리 안으로 '둥글게 뭉친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團자는 사람이 모여 뭉친다는 의미에서 '단체'나 '집단'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소전

해서

5(2)  
-  
22

형성문자 ①



當

마땅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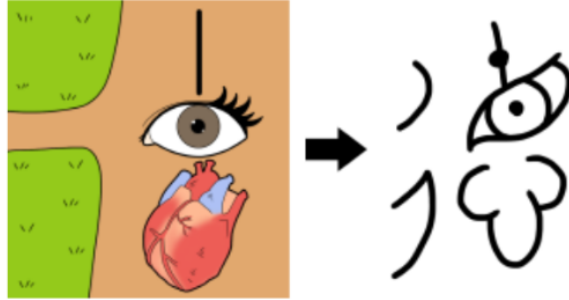
當자는 '마땅하다'나 '균형 잡히다', '말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當자는 尙(오히려 상)자와 田(밭 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尙자는 지붕 위로 무언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當자는 본래 밭과 밭은 '대등하다'라는 뜻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한(後漢) 시대 학자 허신(許愼)이 쓴 설문해자(說文解字)를 보면 當자에 쓰인 尙자는 '상→당'으로의 발음요소일 뿐이고 田자는 밭은 서로 '대등하다'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언뜻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當자에 19개의 서로 다른 뜻이 있는 것을 보면 초기에는 '균형 잡히다'나 '대등하다'를 뜻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후에 다양한 의미가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소전

해서

5(2)  
-  
23

회의문자 ①



德

큰 덕

德자는 '은덕'이나 '선행'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德자는 彳(조금 걸을 척)자와 直(곧게 직)자,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금문에 나온 德자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德자는 사람의 '행실이 바르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直자는 곧게 바라보는 눈빛을 그린 것이고 心자는 '곧은 마음가짐'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길을 뜻하는 彳자가 있으니 德자는 "곧은 마음으로 길을 걷는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길'이란 우리의 '삶'이나 '인생'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 德자는 곧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德

금문

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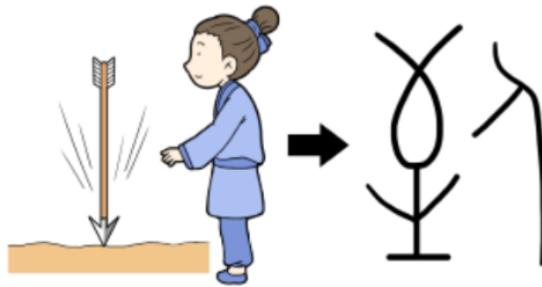
소전

德

해서

5(2)  
-  
24

회의문자 ①



到

이를 도

到자는 '이르다'나 '도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到자는 至(이를 지)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到자는 땅에 화살이 꽂힌 모습을 그린 것으로 어떠한 장소에 '다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금문에 나온 到자를 보면 至자와 人(사람 인)자가 결합한 𠂔 형태였다. 이것은 사람이 어느 한 지점에 도착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人자가 刀자로 바뀌면서 지금의 到자가 되었다. 착오라기보다는 발음을 위해 글자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𠂔

금문

到

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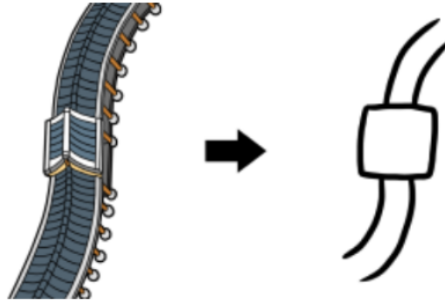
到

해서

|   |   |   |   |    |    |
|---|---|---|---|----|----|
| <div>5(2)</div> <div>-</div> <div>25</div>  | <div>형성문자 ⓘ</div> <div>  </div>   |   |   |    |    |
| <div>獨</div>  | <p>獨자는 '홀로'나 '혼자', '외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獨자는 犬(개 견)자와 蜀(애벌레 족)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蜀자는 나비의 애벌레를 그린 것으로 '애벌레'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애벌레와 개의 조합이 왜 '홀로'나 '혼자'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 개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獨자에 쓰인 蜀자는 단순히 '족→독'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p>  |   |   |    |    |
| <div>홀로 독</div>   |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40 745 820 956">  </td><td data-bbox="820 745 1399 956">  </td></tr> <tr> <td data-bbox="240 956 820 1037">소전</td><td data-bbox="820 956 1399 1037">해서</td></tr> </table> |  |  | 소전 | 해서 |
|  |    |   |   |    |    |
| 소전  | 해서  |   |   |    |    |
| <div>5(2)</div> <div>-</div> <div>26</div>  |   |   |   |    |    |
| <div>朗</div>  | <div>형성문자 ⓘ</div> <p>달빛이 아름답고 밝게 비춘다는 뜻을 나타내는 달월(月 ☾ 초승달)部和 음(音)을 나타내는 良(량→랑)이 합(합)하여 이루어짐. 良(량)은 맑게 환히 비쳐보이듯이 아름다움. 朗(랑)은 아름답고 맑게 밝음. 나중에 좌우(左右)를 바꾸어서 朗(랑)이라고 씀.</p>  |   |   |    |    |
| <div>밝을 랑</div>   |   |   |   |    |    |

5(2)  
-  
27

상형문자 ①



良

어질 량

良자는 '어질다'나 '좋다', '훌륭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良자는 艮(그칠 간)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무 관계가 없다. 良자의 갑골문을 보면 지붕이 있는 복도인 회랑(回廊)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회랑은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복도를 말한다. 갑골문에는 이렇게 건물을 연결하는 복도와 중심부가 표현되어있었다. 그래서 良자의 본래 의미는 '회랑'이었다. 그러나 후에 良자가 '좋다'나 '아름답다', '어질다'와 같은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廊(복도 랑)자가 '회랑'이나 '복도'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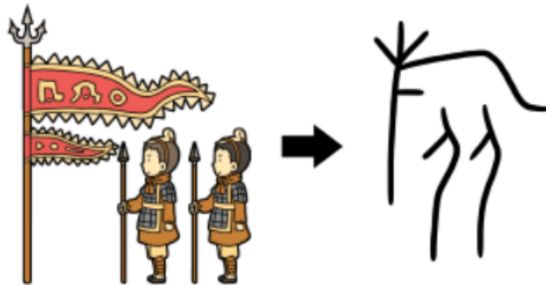
소전



해서

5(2)  
-  
28

회의문자 ①



旅

나그네  
려

旅자는 '나그네'나 '여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旅자는 𡳿(나부길 언)자와 从(좹을 종)자가 결합한 것이다. 旅자의 갑골문을 보면 깃발 아래로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뜻이다. 깃발은 예나 지금이나 각 부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 아래에 여러 사람이 그려진 것은 군인들이 모여 있다는 뜻이다. 고대에는 군인 500명을 '一旅'로 나누어 하나의 군대편제로 구분했다. 그러니까 旅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군대의 편제 단위였던 것이다. 旅자는 후에 '객지살이를 하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는데, 군인들은 전쟁을 위해 오랜 기간 집을 떠나 객지 생활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旅자는 '여행하다'나 '나그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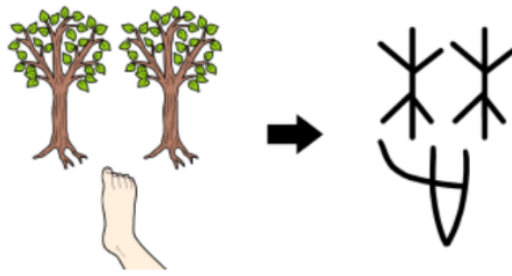
소전



해서

5(2)  
-  
29

회의문자 ①



歷

지날 력

歷자는 '지나다'나 '겪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歷자의 갑골문을 보면 나무 두 그루와 止(발지)자가 함께 𣎵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숲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지나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금문에서는 木(나무 목)자가 禾(벼 화)자로 바뀌게 되었고, 尸(기슭 엄)자가 더해지게 되면서 지금은 歷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비록 글자의 조합이 바뀌기는 했지만 歷자는 '지나다'나 '겪다', '세월'과 같이 지나온 발자취를 뜻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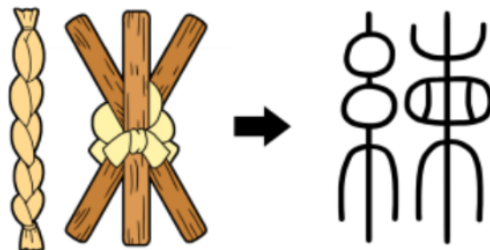
소전



해서

5(2)  
-  
30

회의문자 ①



練

익힐 련

練자는 '익히다'나 '단련하다', '(경험이)풍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練자는 糸(가는 실사)자와 束(가릴 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束자는 나뭇단을 묶어 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가리다'나 '분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練자는 이렇게 '분간하다'라는 뜻을 가진 束자에 糸자를 결합한 것으로 누에고치에게서 뽑은 실을 '분류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수많은 고치에서 뽑은 실을 분류해내는 일을 아무나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練자는 '분류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었지만, 후에 '(경험이)풍부하다'나 '능숙하다', '익히다'와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노련미를 뜻하게 되었다.



소전



해서